

기사 주소: 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5072602109976731003

‘제3회 국제가속기학교’ 내일부터 나흘간 개최

이준기 기자 bongchu@dt.co.kr | 입력: 2015-07-26 15:18 | 수정: 2015-07-26 18:32

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(IBS) 본원에서 '제3회 국제가속기학교(KoPAS)'를 연다고 26일 밝혔다.

이 행사는 가속기 분야의 신진 연구인력 양성과 국내외 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, 미국, 일본, 태국, 알제리 등 총 6개국 7명의 해외 연구자와 100여명의 국내 산학연 신진 연구자·학생 등이 참가한다. 올해에는 가속기 분야 신진 연구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'입문자 과정'을 개설, 가속기 물리 기초이론과 핵심장치의 기초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첫째날인 28일에는 가속기 설계에 관한 '상대론, 전자기 및 역학의 입문' 등 4개 세션의 강의를 진행되며, 둘째날에는 중이온가속기 설계·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'고주파 시스템' 등 4개 세션, 셋째날과 마지막 날은 '초전도 고주파 가속관'과 '싱크로트론 방사성' 등 가속기 설계에 필요한 기술 등 3개 세션으로 각각 운영된다.

강사진에는 가속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(LBNL)의 존 버드 빔물리센터장을 비롯, 핵물리 분야의 세계적 선도 연구소인 토마스제퍼슨국립가속기연구소의 장 들레앙 박사, 울산과학기술대 정모세 교수, 원자력연구원 김유중 박사 등 국내외 가속기·물리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참가한다.

정순찬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은 "국제가속기학교가 앞으로 우리나라 중이온가속기를 세계 최고 성능으로 만들 신진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대전=이준기기자 bongchu@dt.co.kr

[저작권자 ©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

출력시간: 2016-12-03 16:54:33